

# 풍요와 정겨움이 넘치는 예향(藝鄕) 진도



자유기고가 | 강 욱

**한반도** 서남단에 230여개의 섬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전라남도 진도군은 예로부터 시·서·화·창의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워 예술의 본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도(珍島)는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성하여 옥주(沃州)라고도 부른다. “한 해 농사 지어 삼 년을 먹는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내려올 정도로 넉넉한 곳이다. 게다가 점점이 흩어진 228개의 섬과 깨끗하고 푸른 바다, 따듯하고 화사한 기후 등 어느 지방보다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풍족한 생활환경과 천혜의 자연, 그리고 번잡스러운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조건, 그래서인지 진도는 예부터 ‘예향’이라 하여 민속 풍물과 개성 있고 독특한 문화로 더욱 유명하다. 찻김굿, 다시래기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10여명에 달하는 인간문화재, 그리고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어디서나 들려오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문화를 사랑하는 풍토를 잘 보여준다. 또한 진도는 삼별초의 항몽전적지와 이충무공의 명량대첩지 등 불멸의 충혼이 서려있는 호국유적지의 고장이기도 하다.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소백산맥의 지맥인 화원산맥(花源山脈)이 침강하여 형성된 섬이다. 전체면적의 70%가 산지이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지질은 백악기 반암과 응회암이 대부분이며 온화한 해양성 기후다. 백제 때는 인진도군(因珍島郡), 신라 때 진도군으로 고려조까지 진도 안에 3개의 토호세력이 구분되었고, 변천을 거듭하여 1983년에 지금과 같이 읍면별 마을이 조정되었다.

진도는 어업과 양식업도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 외에 유채·마늘·참깨 등을 생산한다. 지역 특산품은 불로장생의 구기자, 유자, 검정 약쌀, 청정 해역에서 건져 올린 돌미역과 돌김, 꽃게 등이 유명하다. 1984년 진도대교의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교통편이 쉬워졌으며 진도읍을 중심으로 군내 주요 지역을 지방도로가 통과한다.

진도 땅에서는 낫선 남자가 길을 가면 밭을 매던 아낙들이 들고 있던 ‘떡구리’를 길 가운데에 툇 걸쳐 놓아 가는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한 가락 부르면 그것을 치워 앞길을 열어 주나 만일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빈정대며 놀려 대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시대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마를 타고 가던 사람 둘이 좁은 길에서 맞닥뜨리면 마치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난 염소들처럼 가마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이 가마 싸움은 무턱대고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가마에 타고 있던 주인이 이 길로 내려와서 처음에는 서로 시 짓기로 겨뤘고, 그 실력이 엇비슷하면 다시 노래 부르기를 했고, 그것마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우면 그제서야 힘으로 싸웠다고 한다.

풍류와 멋을 지니고 있는 고장답게 진도 땅은 밭길 닿는 곳마다 ‘민속의 보물 창고’임을 실감케 해준다. 진도 사람의 이런 기질과 분위기는 진도 땅의 역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느린 박자로 능청스레 노래를 시작해서 점차 흥이 오르면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다 다시 잦아지는 가락이 동적이고 흥겹다. 진도에는 진도 아리랑, 강강술래, 들노래, 뱃노래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소리 한 가락 못하면 진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정도이다.

진도아리랑은 옛부터 아리랑 타령이라 하여 구전으로 불리워져 왔다. 그 시원(始原)은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말엽인 1900년대 초부터 진도아리랑이라 이름 하였다 한다. 가락은 흥겨운 멋을 간직한 속에 애절한 한이 깃들여 있다. 비애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노래로 후렴 중의 응- 응- 응- 소리는 슬픔과 기쁨이 한데 엉겨 있는 것과는 같다.

이 민요의 창법은 판소리와 같이 느낌이 구성된 굵은 목을 눌러 내는 듯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종지음의 치켜 올리는 생동감은 다른 아리랑과 쉽게 구별된다. 가사는 입을 그리는 애끓는 심사와 원망이 해학적으로 엮어진 내용이 많다. 진도아리랑은 가사와 함께 가락에 독특한 흥취가 있어 남도 민요의 진수로 일컬어진다.

진도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징 탓에 군사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고려 원종 때 몽고군의 침입을 받아 치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반대한 삼별초군은 원종의 육촌인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진도로 내려와 항거하는데, 용장산성은 고려의 장군 배중손(裵仲孫)이 이끈

삼별초군이 대몽항쟁(1270~1271)의 근거지로 삼은 성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성의 둘레는 38,741척(尺), 높이 5척이라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내면 용장리에 위치한 용장산성은 돌로 쌓은 견고한 성으로 삼별초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석축으로 된 건물 자리를 420m에 이르는 토성이 둘러싸고 있으며 사적 제 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배중손이 풍수지리에 의존하여 다섯 마리 용이 하나의 구슬을 놓고 다투는 형상인 용장산을 중심으로 산성을 보수 개선하여 쌓은 것이다. 또 진도군에서 의신면 돈지로 향하는 길 중에는 배중손이 새나라 '오랑'의 왕으로 봉했으나 연합군에 쫓기다 죽었다는 온왕의 무덤 온왕릉이 있다.

현재 성의 대부분은 원형이 사라진 상태이고 성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성내의 용장사지 및 행궁지가 보존되어 있다. 성의 길이는 군내면의 용장리, 세등리, 고군면의 도평리, 벽파리, 오류리를 잇는 산등성을 따라 총 12.75km이다.

크기가 엇비슷한 돌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남도 석성은 언뜻 보기에 도 짜임새가 실박한 성임을 알 수가 있다. 담쟁이덩굴이 열키 설키 뒤얽혀 있는 이 성은 임진왜란 때에 무너졌던 것을 그 뒤에 다시 쌓았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5.3m이고 길이가 54m인 성벽과 함께 동문, 서문, 남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 나라에 전하는 여러 옛 성 중에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손꼽힌다.

진도의 이름을 빛내는 데에 여러 개의 천연 기념물이 한몫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진도개이다.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정해졌을 적에, 올림픽 기념 표지는 이 나라를 상징할 만한 동물로 하자는 데에 뜻이 모였는데, 그때에 호랑이, 까치와 함께 진도개가 후보에 올랐으니 진도개는 진도만의 자랑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부름직하다.

술에 취한 주인이 들판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산불이 나서 그 불길이 주인이 누운 곳으로 번져 오자, 꼬리에 물을 적서 야금야금 타들어오는 불을 꺼서 주인을 살려내고 스스로는 죽었다는 진도개 이야기며, 진도에서 배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팔려갔으나 무슨 수를 썼는지 진도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며, 또 얼마나 영리한지 주인이 웃는 얼굴로 쓰다듬어 주면서도 말로는 욕을 했더니 그것을 알아듣고 한쪽 구석으로 비껴가더라는 진도개 이야기들은 가슴이 찡한 감동을 준다.

대개 서양의 개들이 살코기를 푸짐하게 먹이고 심지어 과일과 야채까지 먹이며 사육사를 따로 두어 날마다 훈련을 시킴으로써 명견이 됨에 견주어 진도개는 외지 섬 땅에서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고 배가 고프면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두더지를 잡아먹으면서도 것처럼 출중한 개 '격' 도야를 해 왔다.

1140년쯤에 중국 남송의 무역선이 진도 근해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에 이곳에 떨어진 남송의 개가

오늘의 진도개의 시조라는 이야기가 있고, 조선 초기에 진도군 지산면에 설치했던 국영 목장을 지키기 위해 몽고에서 수입했다거나, 또는 고려 시대 말기에 삼별초군을 쳐부수기 위해 들어온 몽고군의 군견이 남아서 진도개의 시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석기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기르던 후예가 한국 고유견으로 남아 번식되어 왔는데 진도에서만 다른 개와 혼혈되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지켜 진도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운림산방은 침찰산을 깃봉으로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져 있는 깊은 산골에 아침저녁으로 연무가 운림(雲林)을 이루었을 것이고, ‘연화부’를 지었던 소치의 사상으로도 운림(雲林)이라는 당호가 걸맞았을 것이다.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소치(小痴)는 미산(米山) 허형을 낳았고, 미산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의제 허백련이 미산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익힌 곳이다. 이와 같이 유서 깊은 운림산방은 소치(小痴) - 미산(米山) - 남농(南農) - 임전(林田) 등 4대에 걸쳐 전통 남화(南畵)를 이어준 한국 남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전통 남화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운림산방은 조선조 남화의 대가인 소치(小痴) 허유(維)가 말년에 거처하던 화실의 당호로 일명 ‘운림각’이라고 했다. 소치는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호를 붙여준 것이며 젊었을 때는 련(鍊)이라 했고 자는 마힐(麻詰)이다.

소치는 1808년 진도읍 쌍정리에서 허임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1893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치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어 28세 때부터 두륜산방(현, 해남 대흥사)의 초의대사(草衣大師 : 張意恂) 밑에서 공제 윤두서의 화첩을 보면서 그림을 익히기 시작하여 33세 때 초의선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 밑에서 본격적인 서화수업을 하게 된다.

비록 낙도에서 태어났으나 천부적인 재질과 강한 의지로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하여 40세 되던 1847년 7월 낙선재에서 현종을 뵈 수가 있었고, 현종이 쓰는 벼루에 먹을 찍어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흥선대원군, 권돈인, 민영익, 정학연 등을 비롯하여 권문세가들과 어울리면서 시를 짓고 글을 쓰며 그림을 그렸다. 1856년 추사가 세상을 떠나자 소치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침찰산 아래 쌍계사 남쪽에 자리를 잡아 집을 짓고 화실을 만들어 여생을 보냈다.

운림산방 앞에 있는 연못은 한 면이 35m 가량 되며, 그 중심에는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둥근 섬이 있고 여기에는 소치가 심었다는 백일홍 한 그루가 있다. 운림산방, 쌍계사, 상록수림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운림산방에서 약 150m를 오르면 1995년 8월 15일에 세워진 진도아리랑비가 아담하게 서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약 2.8km가 조수간

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질 때 땅이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40여m의 폭으로 똑같은 너비의 길이 바다 속에 만들어진다는데 신비로움이 있다.

매년 음력 2월말에서 3월초 이 현상을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40여만 명이 몰려와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약 1시간의 기적을 구경한다. 진도군에서는 이날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아 진도 고유의 민속예술인 강강술래, 씻김굿, 들노래, 다시래기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선보이고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해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도대교는 세계 3대 사장교의 하나이다. 진도군 군내면 녹진과 해남군 문내면 학동 사이에 놓여진 길이 484m, 폭 11.7m의 사장교로 1984년 10월 18일 준공되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낙조와 야경이 아름답고 다리 아래의 울돌목 물살은 장관을 이룬다. 🌊

